

작품 내용

제 목	고유의것
내 용	남의 빛을 빌리지 않아도 새벽은 스스로 밝아오고, 남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도 강물은 제 바다를 찾아간다.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나만의 숨결, 나만의 걸음은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처럼 조용히 자신을 새겨 간다. 답으려 애쓰지 않아도 좋다.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언제나 세상에 하나뿐인 고유의 것이므로.